

2023년 4월 1주(4/2-4/7) 가족공동체 나눔 교안

마26:57-68 신성모독(Blasphemy)

1. 말씀요약

재판(심판)은 본래 하나님의 권한입니다. 왜냐, 공의와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(심판)합니다. 오류와 거짓 투성이인 인간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이 장면이 인류 역사 최대의 년센스입니다.

예수님을 심판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 최고 사법기구입니다. 법 집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은 절대적입니다. 작은 징계부터 사형까지 결정합니다. 그러나 예수님의 사형은 빌라도를 이용합니다(요18:31). 왜냐하면 민란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(마26:3-5). 죄목은 유대 율법으로 '신성모독죄'를 붙여놓고, 빌라도를 이용해 사형시키려고 '역모 반란죄'를 덮어 씌웠던 겁니다. 벌써 죄목이 두 개입니다. 그러나 이 두 개의 죄목으로는 사형을 집행하기에 부족했습니다. 결국 예수님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온 백성들이 돌아섭니다. 무기력하게 종교인들에게 체포되고 로마군에 채찍과 조롱을 당하는 모습에서 더 이상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음에 배신감을 느끼고 돌아섭니다. 배신감은 증오와 저주로 불타서 당시 가장 극형이었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 지릅니다.

예수님의 죄는 세 가지였습니다. '신성모독죄', '역모 반란죄', '배신죄(괴씩죄)' 이 세 가지는 전부 하나에서 출발합니다.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(메시아)시오,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. 예수님이 이 주장만 굽혔어도 십자가형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 만큼은 물러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. 사람들이 '네가 무슨 메시아냐!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?' 조롱해도 '네가 말하였느니라(마26:64)', '내가 그니라(막14:62)'라고 말씀하시며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.

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, 메시아인 것 자체에 관심 없습니다. **그가 누구든, '나를 만족시켜라' 이겁니다. 나를 만족시켜 줄 때 하나님의 아들이든 메시아든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. 이것이 바로 진짜 신성모독죄입니다.** "당신이 메시아야?, 하나님의 아들이야? 신이야? 그럼 증거를 보여줘! 이 병을 고쳐봐!, 물질을 줘봐!, 성공을 줘봐!, 내가 기도한 대로 행해봐! **그럼 하나님의 아들로,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!**"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가 되는 기준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. 이것이 신성모독죄입니다.

하나님의 아들이시오,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이 신성모독죄로 죽어야 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. 본래 십자가의 자리는 내 자리였죠. 나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매달리신 겁니다. 그리고 그 쏟으신 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. 성령 안에서 그 보혈을 경험한 자들은 내 안에 가득한 신성모독죄가 보입니다. 늘 내 상황과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재판(판단)하고 배신하고, 인정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며 회개하게 됩니다.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,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, 이 복음을 위해 삽니다.

하나님의 아들이시오,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으며 내 삶의 만족 중심으로 예수님을 재단하지 않습니다. 삶에 따라 믿음이 바뀌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바꿔갑니다.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. 우리는 다시 도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. 믿음이란 무엇이며,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. 어려워도 좀 더 노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야 합니다.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. 이번 한 주간 더욱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! "예수님, 당신만이 오직 참 그리스도시오,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!"

2. 적용

나는 요즘 하나님을 재판(판단)하고 있지 않은가요?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나눠봅시다.

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참 메시아이시오,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?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.

3. 함께 기도해요

늘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살아가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. 예수님만이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진정한 메시아이시오,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. 내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144

예수 나를 위하여

(통 144)

김연사, 1905

십자가로 이등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이라

(영 2:16)

NEAR THE CROSS: 7.6.7.6. REF.
W. H. Doane, 1869

보통으로

1.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
2.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
3. 피와 갈이 붉은 죄는 누가 없네
4.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

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
저 자가 의공로 아 니 면 눈영 원 형 별 반
예수공로 아 니 면 눈영 원 형 별 반

후렴

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

보배피를 흘리니 죄인받으소서 아멘

예수 나를 위하여

고난

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

Words & Music by
Stephen Hah

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
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
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
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
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
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느라
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
내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
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- 불드시
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- 불드시
리 - 나는 보 - 배롭고 존귀한
리 - 너는 보 - 배롭고 존귀한
주님의자 나라 주 - 의자니라